POSTECH

청년비전프로그램

더 나은 미래사회를 향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tjpi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주요 활동

STEP Ⅰ.
청년 에세이 공모전

전국 대학(원)생 들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TEP Ⅱ.
청년비전캠프

청년 에세이 공모전 참가자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 공감능력 등
글로벌 리더로서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합니다.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과학기술계를 선도해 왔으며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을 근본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포스텍 설립자 청암 박태준(朴泰俊) 선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와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포스텍의 씽크탱크 연구소입니다.

POSTECH 청년비전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갈 수 있도록
청년 에세이 공모전과 청년비전캠프, 저명학자와 함께하는 포럼을 지원합니다.

STEP Ⅲ.
저명학자와 함께하는 포럼
청년 에세이 공모전과 동일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저명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포럼을 통해 젊은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합니다.

STEP Ⅳ.
미래전략연구총서 발간
청년들의 에세이와 저명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미래전략연구총서로 발간하여 더 나은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전파합니다.

청년 에세이 공모전

공모전 참여 전국 대학교 수
86개

공모전 참여 전국 대학(원)생 수
535명

2018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세대, 계층, 가치관, 이념, 젠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수상작

- 젠더 갈등의 정점에 있는 이 시대, 남녀의 대화는 가능할까? - 백승연(서울여대), 이수현(서울여대)
- 너와 대화하기 위해 - 박준수(경희대)

2017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상작

- 우리의 언어에 존중이 있는가 - 노현태(한양대), 유용재(서울대)
- 듣기 좋은 말은 귀머거리도 듣게 만든다 - 배형준(연세대)

2016

'행복한 한국사회'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수상작

- 한국사회의 네오 홀로코스트, '혐오' - 오준수(연세대)
-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의 행복으로 - 김형근(연세대)

2015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수상작

- 목소리를 내는 연습 - 문숙진(POSTECH)
- 골든타임 10년, 방치하면 인재(人材)를 잃고 인재(人災)를 낳는다
  - 김동우(POSTECH) , 정재엽(서울시립대), 정금옥(영남대)

2014

21세기 미래 리더는 어떻게 배출되는가?

수상작

- 게임이론으로 바라본 투명사회의 리더십 - 임민혁(서울대)
- 지향하는 미래사회와 그 미래사회를 견인할 창조리더에 관한 연구
  : 창조리더 정조를 중심으로 -홍현우(서울시립대), 신지수(건국대)

청년비전캠프

프로그램

1.
자기소개 /
아이스브레이킹

2.
명사 초청 특강

3.
에세이 발표/
토론

4.
리더십 교육

5.
액티비티를 통한
친교의 시간

6.
포스텍 캠퍼스 투어

참가자 후기

이수현, 백승연 | 서울여대

"'같이'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포스텍에서의 1박 2일은 혼자 책 속에서, 방 안에서 고민했다면 절대 몰랐을 귀한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얻어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는 저마다의 생각과 대안을 들으며 저의 세계도 알록달록하게 물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모전 후 이어진 캠프 프로그램은 자칫 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미래의 동료'로 여길 수 있도록 해 준 소통의 경험이었습니다."

육 솔 | POSTECH

"에세이를 작성하며 내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 결국 글의 본질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얼마 후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청년 캠프를 통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크나큰 위로가 되었으며, 눈을 마주하고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소중한 기회였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갈 수 있는 나만의 참고서가 되었다."

박준수 | 경희대

"청년비전캠프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닫게 된 사실은,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나는 강박적으로 한국 사회가 갈등 속에 사로잡혀있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해결 방안이라는 방향성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정확하게 한국 사회를 해롭게 하는 문제인가를 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그들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나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